

인용동기와 인용환경요인 모형개발

Modeling the Citation Environment Factors Influencing Citation Motivations

김 갑 선(Kap-Seon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인용동기와 인용환경요인 모형개발 |
| 2. 인용이론적 분석 | 5. 결론 및 제언 |
| 3. 인용동기 관련 연구 분석 | |

초 록

연구자의 인용행위는 정태적 과정이기 보다는 인용자를 둘러싼 제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식을 생산, 재생산 하고, 유통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용이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인용자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고, 설득하기 위한 보편적인 행위이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인용행위를 수행하는 인용자의 다양한 인용환경적 맥락이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동기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일반적인 인용동기 요인으로서 (1) 실질적 동기, (2) 설득적 동기, (3) 형식적 동기, (4) 사회적 관계 동기를 도출하고, 이러한 일반적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요인으로 서, (1) 인용자와 문헌 요인, (2) 사회문화적 환경, (3) 정보환경, (4)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각 각의 인용환경은 인용자를 둘러싼 별개적인 인용환경 범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라는 맥락에서 인용환경요인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인용이란 그 사회의 다양한 인용환경과 인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citing is not a static process but a dynamic process which is to produce, to reproduce and to distribute knowledge by the interaction between societies surrounding the citer.

This study begins by briefly acknowledging that citation is a universal practice in terms of establishing citer's own basis of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to previous studies, and persuading potential citer to cite his/her research product. This study, however, is a preliminary attempt to examine the premise that although citing is a universal practice, but citer motivations can be influenced by various citation environmental contexts surrounding the citer.

This study presented general citation motivations derived from previous studies: (1) substantial motivations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itations, (2) persuasive motivations - positive, applied, and negative citations, (3) perfunctory motivations - perfunctory and bibliographic citations, and (4) social relation motivations - personal connections and knowledge familiarity cit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citation environment factors affecting these citation motivations: (1) citer and documentation factor, (2)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3) information environment, and (4) international knowledge system environment. Each citation environment factor presented should be interpreted not as a separate factor, but rather as a close interrelation among these environment factors. Finally, the model of the citation environment factors developed in this study was discussed in th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itation motivations and their citation environment factors.

This study suggested that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se relationships more empirically and cit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social product reflecting the interaction between citer and various citation environments.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연구조교
접수일자 1999년 1월 25일

1. 서론

인용연구는 문헌정보학 뿐 아니라 계량과학, 과학사회학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분석기법이다. 이들 분야에서 인용분석은 주로 인용행위의 생산물인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정보원의 효율적 선택과 정보검색, 과학지식과 연구자집단의 행태구명과 구조분석 등에서 적용되어 오고있다. 이와같이 인용연구의 응용력(Smith 1981,94-98; Snyder 1995,77)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인용연구는 인용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과 그 해석에 집중되어져, 인용연구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자 인용문헌의 직접적인 생산동기인 인용자의 인용동기와 이러한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적 영향요인과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연구관심이 주어져 왔다. 따라서 인용행태와 인용현상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인용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인용동기와 그 환경적 영향요인에 관한 관련성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탐구적 맥락에서, 본 연구의 의도는 인용행위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인용자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고, 설득하기 위한 보편적인 행위(universal practice)이지만, 인용자의 다양한 인용환경적 맥락, 즉 인용자를 둘러싼 인용자의 사회문화적 환경, 정보환경,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 등이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제시된 다양한 인용환경과 인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하나의 사회적 산물로서 인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동기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인용동기(general citation motivations)요인을 도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① 인용동기를 논의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되는 인용이론적 관점을 사회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으로 대별하여 인용동기연구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고, ② 인용동기 관련 연구를 인용동기의 간접적 분석인 인용기능연구와 인용동기연구로 대별하여 구성요소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③ 일반적인 인용동기요인과 인용동기에 관한 일반적 추세를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일반적 인용동기에 작용하는 인용자와 문헌을 둘러싼 다양한 인용환경과 그 영향요인들을 제시하고

셋째, 인용이 제 사회적 인용환경과 별개적으로 분리되어 수행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련성이라는 맥락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접근에서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요인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인용이론적 분석

2.1 인용이론

인용연구는 일반적으로 한 문헌에 첨부된 인용문헌 또는 참고문헌에 대한 일련의 분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용연구의 전제조건은 1) 인용행위는 연구자의 연구활동에서 수반되는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2) 이러한 과정은 현재의 연구와 선

행연구와의 관련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련성, 관계맺음은 인용을 구성하는 요소인 인용자, 문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제 인용환경과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1) 인용된 문헌과 인용한 문헌과의 관계, 2) 인용된 문헌과 인용자와의 관계, 3) 인용된 저자와 인용자와의 관계, 4) 인용자를 둘러싼 제 인용환경과의 관계로 대별해 낼 수 있다.

인용연구는 이러한 구성요소간, 특히 1), 2), 3)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주로 인용행위의 생산물인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과학지식, 연구자, 연구활동, 정보원의 선택이나 정보검색등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주로 생산성(productivity), 의미(significance), 질(quality), 중요성(importance), 영향(influence, impact), 유용성(utility), 가시성(visibility), 적합성(relevance), 효율성(effectiveness)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왔다.

다양한 인용분석의 토대가 되는 인용이론이란 인용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또한 동시에 인용분석은 지식이 어떻게 사회화되고, 인지적으로 조직되고, 행해지는가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인용이론의 유형에 있어 일부 연구자들(Liu 1993a, 370-371)은 규범학과(normative school)와 인용행위의 규범적 타당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마이크로사회학과(microsociological school)로 구분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연구자 진영인 계량과학 연구자들은 사회학적 관점(sociological perspective)과 인지적 관점(cognitive perspective)으로 대별하고 있다. 현

재 인용이론에 관한 논의는 종래의 규범적인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용행위의 과정중심인 인지적 관점의 분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이론에 관한 최근의 일반적 관점인 사회학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사회학적 관점에는 머튼류의 규범학과와 본격적인 인지적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미흡한 일부의 마이크로사회학과를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러한 양대 이론적 토대에서 제기되는 인용동기관련 논의들을 비교하여 두 이론적 관점의 차이를 좀더 명료화해 보기로 한다.

2. 1. 1 인용의 사회학적 관점

인용의 사회학적 관점은 과학사회학의 “머튼주의 패러다임(Mertonian paradigm)”(Merton 1973)에서 근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연구활동의 생산물인 연구자의 출판물들을 과학에서의 고유한 재산시스템(property system)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연구성과물들이 학술공동체에서 동료연구자들의 인용을 통해 승인받는 보상체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사회학적 맥락에서 인용분석은 주로 연구자나 연구집단의 생산성(productivity), 질(quality), 중요성(importance), 가시성(visibility), 영향(impact)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평가적 인용분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사회학적 관점에 따르면, 인용의 기능이나 동기는 과학발전의 흐름속에서 현재의 연구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주는 지적 연결(May 1967)을 의미하며, 동료 연구자의 업적에 대한 승인(Merton 1973), 지적재산권과 선취권의

인정(Kaplan 1965), 전문직으로서의 예의(Ravetz 1971), 지적부채를 갚는 행위(Gilbert 1977)로 집약될 수 있다.

이와같은 특성을 갖는 인용의 규범 사회학적 관점의 한계는 결국 인용을 연구자의 규범적인 행위로서만 해석하고자 했던 특성에 가해지는 비판으로서, 이를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비판의 하나는 주로 인용이 인용자의 인용행위의 결과지향적 분석, 평가적 인용분석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인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Leydesdorff 1987,306)이다. 또 다른 비판의 하나는 인용의 다양한 행태적인 측면을 간과한다는 측면으로, 규범적인 사회학적 관점은 인용동기를 지적인 관련성을 토대로 한 보상적 동기(예:선행연구나 연구자의 승인, 경의심, 선취권 인정 등)로만 규정하고, 모든 인용자의 동기를 단일하고, 동일한 인용동기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인 인용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다양한 사회학적 맥락에서 인용동기를 연구한 일군의 연구자들(Brooks 1986; Vinkler 1987; Cozzens 1989; Shadish et al. 1995)은 인용동기에 있어 규범적이고 보상적인 단일한 동기 이외에도 인용자의 개인적, 과학적,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용동기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May 1967)고 보거나, 인용은 인용한 저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Cronin 1981, 21)고 하였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인용자 중심의 실증적인 인용동기를 조사(Brooks 1985:1986; Vinkler 1987; Shadish et al 1995)하였으며, 인용에 있어 단일하고 동일한 동기가 작용되기 보다는 복합적

동기가 작용한다(Cronin 1984; Brooks 1986; Sandison 1989; Vinkler 1987)고 하였다.

2. 1. 2 인용의 인지적 관점

인지적 인용논의는 규범적이고, 인용행위의 결과중심적, 평가적 분석 중심의 규범적인 사회학적 관점과는 달리 주로 인용과정에서의 인지적 작용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이론에서의 인지적 관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는 만큼 아직까지 합의된 공통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논의와 그 유형을 대별하여 봄으로써 나름의 정의에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Henry Small(1987, 339)은 “참고문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담론을 생산하는데 수반되는 인지적 과정들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 우리가 하나의 주제에 관해 표현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mind)이 특정자료와 연관되어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일련의 사고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인용연구에서 인용과정의 인지적 작용을 설명하는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Gilbert(1977, 113)는 출판물을 과학의 고유한 재산시스템으로 상징하는 종래의 사회학적 관점과는 달리 인용이 설득적 장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용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의 합당함과 중요성을 학술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설득하여 그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인용에서 인지적인 영향력으로서 설득적 작용이 중요한 것은, 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동료 연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과학자식으로 변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

나라 인지적 관점에서의 인용연구자들은 인용에서의 인지적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적인 관점을 수용한다. 즉 종래의 규범적인 과학사회학적인 관점과는 달리, 과학지식이 자연계에 대한 엄격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창출된다는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으로서의 지식”이라는 인식론을 도입한다. 특히 Bruno Latour의 메카니즘인, “지식이 하나의 지식주장(knowledge claim)에서 적절한 연구자집단과 연결되는 이용(use)을 통하여 과학적 사실(scientific fact)로 확립된다”는 논의를 차용하기도 한다.

검토된 선행 논의를 근거로 인용의 인지적 관점이란 인용과정에서 인용자에 의해 형성되는 일련의 사고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인용문헌을 인식하고 선택하게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인용과정을 통해 지식(인용된 문헌 혹은 지식주장)이 어떻게 사회화되고, 인지적으로 조직되는가의 논의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인용연구의 유형을 대별하여 보면, 그 유형의 하나는 인용된 문헌을 하나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개념적 상징으로 상정한 Henry Small(1978)과 후속 연구자들의 연구로서, 이들은 인용문맥분석을 통해 인용문헌간의 어의적 관계를 검토하여 인지적 관계, 인지적 유사성을 측정하고, 이를 장서개발이나 정보검색에 적용한 연구들을 열거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유형은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인용동기 관련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 논의들로서, 인지적 인용기능 연구라고 분류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Small(1978)류의 상징적 인용연구(Allen 1997)나 과학지식사회학에서 영향받은 인용연구(Amsterdamska & Leydesdorff 1989)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내용분석이나 인용문맥분석을 통해 인용자가 인용과정에서 인용한 논문의 지식주장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수용하는가를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3. 인용동기 관련 연구 분석

3.1 인용기능 관련 연구

본 연구에서 인용문헌간의 관계규명을 통해 인용기능을 구명하고자 했던 인용기능에 관한 논의들(Lipetz 1965; Chubin & Moitra 1975; Moravcsik & Murugesan 1975,1978; Frost 1979; Pentz 1983; Oppenheim and Renn 1978; Amsterdamska and Leydesdorff 1989; Allen 1997)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이들 논의들이 인용동기에 관한 간접적 접근으로서 인용동기의 시발점이 되는 연구라고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인용기능의 범주화 논의의 공통점은 1) 인용기능 연구의 목적이 처음에는 인용기능을 규명함으로써 인용색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졌으며, 2) 인용된 문헌과 인용한 문헌간의 관계규명을 통해 인용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3) 각 연구자가 고안한 인용기능의 판정은 주로 내용분석이나 인용문맥분석에 의해 해당 주제의 전문가(주제분석가)에 의해 분석되었다. 4) 내용분석이나 인용문맥분석을 통한 인용의 기능분석은 왜 저자가 인용하려고 했는

가에 대한 인용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3. 2 인용동기 관련 연구

인용동기에 관한 연구(Weinstock 1971; Brooks 1985,1986; Vinkler 1987; Cozzens 1989; Shadish et al,1995)의 공통점은 1) 주로 인용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용동기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실증적인 연구이며, 2) 이들의 주 접근은 인용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인용동기의 선정에 관심을 기울이며, 단일요인에 의해 인용행위가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복합적 인용동기에 의한 것으로 파악한다. 3) 인용동기에 있어, 지적이고, 규범적인 요인 이외에도 사회적 관계에 의한 동기요인도 제시하였다.

3. 3 관련 연구 분석

본 연구에서 논의된 인용동기 관련 선행연구들의 제반 특성을 인용이론적 관점, 연구목적, 분석주제, 연구방법, 기능/동기판정, 주요동기 등의 면에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이와 더불어 관련논의들의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용동기에 관한 포괄적 논의로서, 인용기능 논의는 본문의 내용분석이나 인용문맥분석에 의해 인용문헌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 인용동기의 간접적 분석이며, 인용동기 논의의 시발점으로, 주로 사회학적 관점이나 지적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인용동기 논의는 실증적 연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용자

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적이고, 보상적인 관련성 이외에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한 관련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 두가지 논의들은 각기 접근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구성요소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2) 인용동기를 연구함에 있어 인용이론의 두가지 대별적 관점으로는 사회학적 관점과 지적 관점이 있다. 사회학적 관점은 인용동기를 지적이고, 보상적 논의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규범적(Merton 1973; Kaplan 1965; Ravetz 1971)이고 사회학적인 논의(Lipetz 1965; Weinstock 1971; Chubin & Moitra 1975; Murugesan & Moravcsik 1975,1978; Oppenheim & Renn 1978; Frost 1979; Peritz 1983)와, 이러한 규범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사회학적 맥락에서 복합적인 인용동기를 제시한 논의(Brooks 1985; 1986; Vinkler 1987; Cozzens 1989; Shadish et al 1995)가 있다. 지적 관점은 인용과정에서 인용된 문헌의 지적 수용에 관한 인용기능 논의(Amsterdamska & Leydesdorff 1989; Allen 1997)로 볼 수 있다. 이들 논의들은 서로 대립되는 관점이기 보다는 두 관점의 상호보완적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용동기나 그 영향요인의 해석에 있어, 이 두가지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 (3) 인용동기에 관한 선행연구결과, 인용의 주요 동기는 주로 연대기적 맥락의 형식적 인용(Chubin & Moitra 1975;

〈표 1〉 인양동기 관련 실험연구 개요

연구자	Lipetz (1965)	Chubin & Madra (1975)	Margueson & Marascuik (1975,78)	Oppenheim & Rein (1978)	Frost (1979)	Peritz (1983)	Amendsonia & Leydsonoff (1988)	Allen (1997)	Wetstock (1971)	Brooks (1985,86)	Wilder (1987)	Ozozens (1988)	Shadish et al. (1995)	
연구방법	사회학적 인양동기	사회학적 인양동기	사회학적 인양동기	사회학적 인양이유	사회학적 인양동기	사회학적 인양동기	인지적 인양동기	인지적 인양동기	사회학적 인양이유	사회학적 인양동기	사회학적 인양동기	사회학적-인지적 인양동기	사회학적 인양동기	
연구주제	동양적 과학적기여 일반적 기여 동일 혹은 연속관계 과학적 기여 처리	응인-필수-기본 응인-필수-보조 응인-보완-부가 응인-보완-필수 부정-부분 부정-절제	개념적 조작적 개념적 형식적 관계적 방법론 응인적 부정적	역사적 배경 좌합적과학기술 비교목적의외 비교목적 이론적양정식 방법론 무용응인론	임차문헌 이차문헌 일차문헌	원색연구단계설정 배경정보 방법론 비교정보 논쟁주제,기설제 기분적 역사적 형식적	생화학 (네일만드,79-82) 4논문,388인용	지식구조관련형 논리구성특성 연구관심함법화 맥락화	근정 부정 중용	경의표현 관련연구응인 방법론,장비 배경적 활용거리 차인연구수정 타 연구수정 선행연구비판 --- 아이디어 비판 선유된 논법	확신성 부정적 조작적 선택 특정종교 사회적 합의	전문과 동기 관계적 동기 인양동기과동기	수사적(개념상정) 보상적(인양,양정)	부정적 개인적 영향 창의적 인양 고전 사회적 이유 자극적 기타:학벌,양명론
분석주제	물리학	물리학	물리학 (미스,일,유원) 220논문,2501인용	물리학 (유원,부미,74-75) 23개논문,578인용	독일문학	사회과학	생화학	경영정보학 (미국) 1논문,61인용		인문,사회,자연과학 (미국) 20개논문,427인용	과학 (영가리) 20개논문,684인용		심리학 (미국,1985) 192개논문,192인용	
연구방법	내용분석	내용분석	내용분석	내용분석	내용분석	내용분석	인양문헌분석	인양문헌분석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인양기능/양정	연구자	연구자	전문가	전문가	연구자	연구자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피합자	피합자		피합자	
주요기능/동기		응인-보완-형식	형식적	역사적 배경 (연구대상자이여 한정)	부서 전체,지거		수용,적응, 논리구축	부정적	전문가	피합자	전문가		추감자지, 양명론	

Murugesan & Moravcsik 1975, 1978; Oppenheim & Renn 1978), 긍정/지지적 인용(Amsterdamska & Leydesdorff 1989; Shadish et al 1995)/설득(Brooks 1985; 1986), 개념이나 방법론의 인용(Vinkler 1987; Shadish et al 1995)이라는 범주에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용자는 인용의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와 실질적인 관련성(개념, 이론, 연구방법, 연구결과)이 있는 적합한 문헌을 인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관련성이 덜 한 문헌을 인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인용동기에 있어 학문적 사고행태의 특색과 연구논문의 특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다시말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그 학문영역에 따라 사고양태도 달라지고, 더불어 이론적, 방법론적, 실증적/실험적인가 등 연구적 특색에 따라 인용의 기능이나 그 동기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5) 학문적 특색에 따른 인용동기를 살펴보면, 과학문헌에서는 인용의 주요동기가 최신성, 선행연구의 인정, 지적부채의 표시, 선행아이디어를 근거로 했음이며, 문헌분야에서는 과학문헌보다 의견의 문헌이 보편적이고, 실재적 정보는 덜 중요하게 이용된다.

4. 인용동기와 인용환경요인 모형 개발

4. 1 일반적 인용동기 요인

인용동기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일반적인 인용동기(general citation motivations)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의 <표 2>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구성요인들을 비교한 것으로 (1) 실질적 동기: 개념적, 방법론적 인용, (2) 설득적 동기: 긍정, 응용, 부정적 인용, (3) 형식적 동기: 형식적, 서지적 인용, (4) 사회적 관계 동기: 친분관계, 지식과시적 인용동기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구분은 요인 상호간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상호 배타적인 범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실질적 동기요인에도 설득적 요인, 형식적 요인, 혹은 사회적 관계 동기요인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는 사회적 동기요인에도 실질적 동기요인을 일정 정도 내재하고 있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용동기요인은 어느 정도의 일반성을 담지하고 있는 범주이지만, 인용자의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 따라, 즉 인용자 요인과 이러한 인용자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작동되는 인용동기요인이나 그 동기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논의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실질적 동기는 인용한 논문의 개념이나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작용되었던 요인으로, 개념적 인용과

〈표 2〉 인용동기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일반적 인용동기 요인

연구자	Lipetz (1965)	Chubin & Malba (1975)	Murugesan & Mozzacak (1975,78)	Oppenheim & Renn (1978)	Frost (1979)	Petz (1983)	Amendtmeisels & Leydendorff (1983)	Allen (1987)	Weinstock (1971)	Brooks (1985,86)	Weller (1987)	Coxens (1989)	Strudsh et al. (1986)
인용동기 요인	사회학적	사회학적	사회학적	사회학적	사회학적	사회학적	인지적	인지적	사회학적	사회학적	사회학적	사회학과-인지적	사회학적
실질적동기	0	0	0	0	0	0			0	0	0		0
개념	0		0	0		0							0
방법	0	0	0	0		0			0	0			0
철학적 동기	0	0	0	0	0		0	0	0	0	0	0	0
승인	0	0	0	0	0		0	0	0	0	0		0
응용	0						0				0		
부정	0	0	0	0	0		0	0	0	0	0		0
형식적 동기	0	0	0	0	0	0			0	0	0	0	0
형식적	0		0			0			0		0		0
사자적	0		0		0	0			0	0	0		0
사회적 관계 동기										0	0	0	0
친분관계											0		0
자신감(최신성 사회적활동의)										0			0

방법론적 인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 ① 개념적 인용이란 연구질의 유도, 개념의 이해, 주요 아이디어원으로 작용되었던 인용동기 범주를 포함한다. ② 방법론적 인용이란 연구설계, 분석방법, 데이터수집에 요구되었던 인용 범주를 포함한다.

- (2) 설득적 동기는 인용자가 선행연구의 수용에 있어 수동자가 아니라 능동자로서, 선행연구의 기존지식(지식주장)을 ① 승인(반복, 수용, 입증, 인증, 확증, 긍정적, 지지적 인용) 혹은 ② 응용(지식주장 변형, 구별, 비교, 수정, 향상, 확대)하거나, ③ 부정(반대, 비난, 논박, 대체, 의문제기, 불승인, 기각, 부정적 승인, 부정적 인용,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인용자의 논리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인용이다. 또한 설득적 동기에서 승인적 요인은 명성있는 연구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상적 시스템”(Cozzens 1989), 인용을 통한 선행연구의 지지, “첫 연구자에게 경의표현”(Weinstock 1971), 연구성취에 대한 승인의 효과가 있음으로 보상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인용의 측면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3) 본 연구에서 형식적 동기란 실제적으로 인용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연대기적 맥락에의 기여, 관련연구의 서지적 기능을 수행하였던 인용 범주로 ① 형식적 동기와 ② 서지적 동기로 대별할 수 있다.
- (4) 사회적 관계 동기란 연구논문을 구축하

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설득적인 동기보다는 인용자의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인용으로, “최신성, 사회적 합의”(Brooks 1985), “관계적 인용동기”(Vinkler 1987), “사회적 이유에 의한 인용”(Shadish et al. 1995) 등과 동일 의미이며, ① 친분관계에 의한 인용, ② 최신성의 유지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지식과시 인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 2 모형개발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인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적 영향요인의 모형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이 “보편적인 행위(universal practice)”(Liu 1993a, 397) 혹은 “보편적인 현상(universal phenomenon), 세계적인 현상(worldwide phenomenon)”(Liu 1997, 85,80)이라고 언급될 수 있는 인용의 보편성의 근거는 인용자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자신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고, 설득하기 위해 인용행위가 수행된다는 점에서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인용행위를 수행하는 인용자의 다양한 인용환경적 맥락이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환언하자면 보편적인 인용행위를 수행하는 인용자는 제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용자 자신의 연구적 착상이나 추론의 바탕이 되는 지식체계와 사고양식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영향받고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용자를 둘러싼 다양한 인용환경적 요인이 인용자의 연구논거 확립에 요구되는 정보요구인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제와 인용자와 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인지사회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로 상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 근거하여 보다 상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검토된 인용동기 관련 선행논의에서 해결과제는 인용동기에 관한 이론적 관점이다. 즉 이를 사회학적 관점이나 인지적 관점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인용활동을 인용자의 정태적 과정이 아니라 인용자가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역동적 과정이란 사회학적 접근 혹은 인지적인 접근이라는 단일적이고 개별적인 요인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러한 접근의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용을 해석하는 접근점에 있어 전적으로 사회학적 접근이고 전적으로 인지적 접근이란 있을 수 없다. 인지적 접근에도 사회학적 측면이 전제되어 있고 사회학적 측면에도 인지적 접근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인용의 인지적 관점은 두가지의 접근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시적 접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시적 접근이다. 인용이론의 인지적 연구는 인용과정에서의 정보(지식)처리적 인지작

용을 논의하려는 미시적 접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인용동기의 영향요인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인지적 접근을 선호한다. 따라서 이는 인용행위를 수행하는 인용자가 다양한 인용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지적 작용을 논의하려는 본 연구의 의도에서 인지사회학적 접근과 이해를 같이한다.

- (3) 인지사회학적 의미에서 인지란 사회와 유리되어 존재하는 인지나 인지 자체만이 존재하는 인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사회의 산물이며, 사회적으로 구축된 인지를 전제한다. "인간의 마음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인간의 행위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상황지워지는 것이며, 행위 주체자의 표상(사고, 신념, 느낌)과 사회적 맥락(타인과의 관계)이 고려되어야 한다(이정모 1996, 3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인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작용이란 사회화된 과정으로 파악하고, 사회학적 맥락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4) 본 논문에서 인용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즉 개념, 이론, 방법론, 연구결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선행연구의 기존지식(지식주장)을 승인하거나 혹은 응용하거나, 부정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논리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획득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설득이란 후속연구자의 그 이용, 즉 잠재적 인용자에 의한

잠재적 인용이라는 인용의 순환적 의미까지도 전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 (5) 또한 인용이란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식의 생산, 재생산 과정이자 동시에 지식의 유통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인용자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각 부문의 외부요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유기적인 관계속에 있다. 따라서 종래의 인용연구에서는 문헌과 인용자를 둘러싼 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간과해 온 경향이 있어 왔지만, 인용자를 둘러싼 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될 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6)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인용환경이란 인용자와 문헌을 둘러싼 거시적 차원의 외부적 사회환경으로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인용행태에도 작용하는 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용환경 요인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정보환경적,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등을 제시할 수 있다.

4. 3 인용동기와 인용환경요인 모형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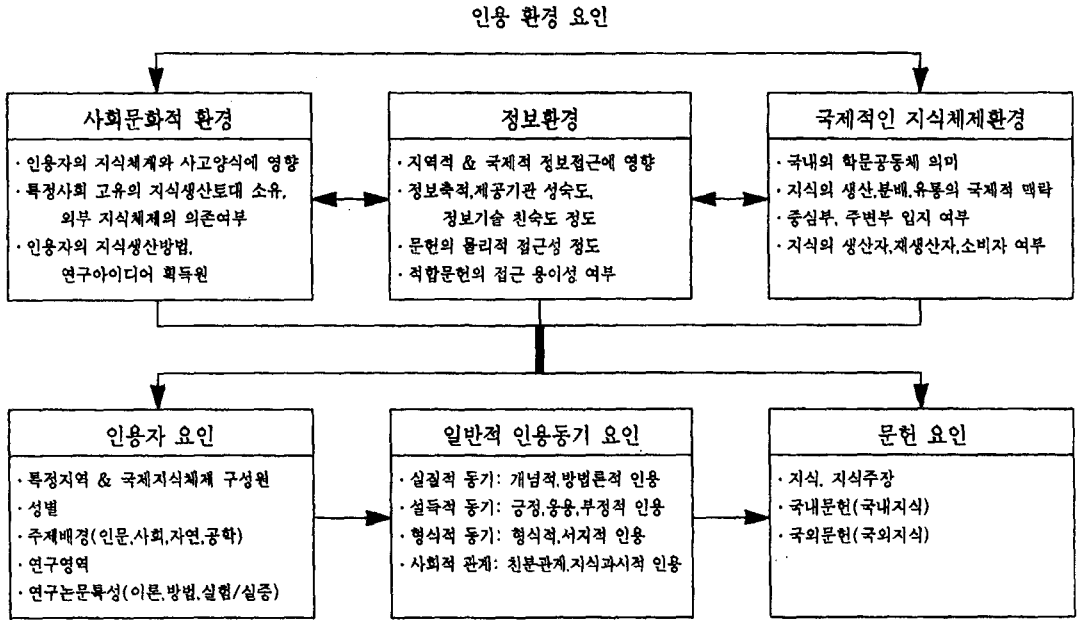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일반적 인용동기 요인인 (1) 실질적 동기, (2) 설득적 동기, (3) 형식적 동기, (4) 사회적 관계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적 요인들을 (1) 인용자 및 문헌 요인, (2) 사회문화적 환경, (3) 정보환경, (4)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으로 대별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인용자를 둘러싼 다양한 인용환경적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환경, 정보환경,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만을 선정한 근거는 이들 요인들이 문헌이나 지식의 생산, 분배, 유통의 순환적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 요인이라고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을 설정한 이유는 특정사회의 지식의 생산, 분배, 유통의 학술공동체는 그 사회적, 문화적, 정보환경적 토대에서 독자성을 구축하는 것 뿐 아니라 인용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단위의 지식의 생산, 분배, 유통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지식을 발전적으로 수용하거나, 다른 지역에 전이시키기도 하는 등 주변지역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 사회 나름의 독특한 학술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인용동기와 그 인용환경적 영향요인들을 도식화하고, 구성요소 및 특성을 요약한 것이다. 제시된 이러한 세가지 인용환경을 별개적인 인용환경 범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일례로 인용분석을 통한 국제적인 지식교류면에서 '폐쇄나 단절' 혹은 '절대적 국외의존'의 양극단적 현상은 인용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이는 비단 지식의 생산토대가 미비하거나 낙후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뿐 아니라 정보환경의 미성숙이나 낙후, 또는 서구중심의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과도 맞물린 현상체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용환경과 그 영향



〈그림 1〉 인용동기와 인용환경요인 모형

요인들을 인용동기와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4. 3. 1 인용자 및 문헌 요인

인용자는 인용행위의 주체로서, 다양한 인용환경내에 위치하고, 이러한 인용환경과 상호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인용자 요인으로서 다음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인용자는 자신의 연구적 착상과 추론의 바탕이 되는 지식체계와 사고양식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적응하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성별적인 특성을 가진 연구자이다. 또한 인용자는 자신의 학문적 배경(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과 연구영역, 해결하고자 하는 논문

의 특성(이론적, 방법론적, 실증적/실험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용자는 인용행위를 통해 지식의 생산, 재생산 및 유통의 과정에 참여하는 특정지역의 학술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국제지식체제의 한 구성원이다.

문헌이란 인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요인으로, 필요에 따라 지식 혹은 지식주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문헌적 요인에는 국내문헌과 국외문헌이 존재하는데, 국내문헌이란 국내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문헌 혹은 그 문헌에 담지된 내용적 표현으로서의 국내지식으로 파악하고, 국외문헌 역시 국외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문헌 혹은 그 지식을 총칭하기로 한다.

4. 3. 2 사회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이란 인용자의 지식체계와

사고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인용환경요인이며, 인용자의 지식의 생산방법뿐 아니라 그 사회의 지식의 생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인용동기와의 관련성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다른 인용환경, 즉 정보환경이나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인 환경요인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인용자가 포함된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 사회 고유의 사회, 문화적 경험을 담지한 지식의 생산토대를 갖춘 사회인가 혹은 외부적 지식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인가의 여부는 인용동기에 있어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용자의 지식생산방법, 즉 협의적 의미에서 논의하면 인용자 자신의 연구아이디어 획득원이 어디인가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이는 국내의 문헌이나 동료연구자에 의한 공식 및 비공식채널을 통해 획득하느냐, 국외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획득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외부적 지식체제로의 의존은 결국 개념이나 방법론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용동기적 해석을 가하면 실질적인 동기인 개념 및 방법론적 인용동기와 관련 있을 것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주변국의 연구자들은 중심국에서 생산된 문헌(지식)의 권위와 명성에 의지하여 자신의 논거를 밝히고 주장하는 보상적, 승인적 인용동기가 강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식생산토대를 갖춘 사회문화적 환경의 인용자들은 기존연구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함을 변호하는 설득적 인용동기가 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4. 3. 3 정보환경

정보환경이란 인용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지역(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정보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인용자를 둘러싼 인용환경적 요인으로서 도서관이나 데이터베이스산업과 같은 정보축적, 제공기관의 성숙도, 인용자의 정보기술의 친숙도와 같은 요인들이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례로 이러한 가정은 다음의 관련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그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 ① 문헌의 중요도 보다는 문헌의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과 편리성 여부가 인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Soper 1976, 409).
- ② 문헌의 물리적 접근성(도서관 이용도)은 인용 문헌의 수의 증가와 관련있다 (Liu 1993b, 17).
- ③ 문헌의 물리적 접근 장애는 인용의 간과 요인으로 작용한다 (Vinkler 1987).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는 정보환경적 요인이 인용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용동기의 측면에서 몇가지의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정보환경적 요인은 인용에 있어 실질적인 관련성 요인, 즉 방법론적 인용이나 개념적 인용에 있어 적합문헌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인용자는 때로는 최소 노력의 원칙에 따라 문헌의 중요도 보다는 문헌의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과 편리성 여부에 따라 인용문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는 인용문헌이 관련연구의 적합성 보다는 관련문헌의 형식적 인용동기에 의해

인용될 가능성이나 형식적 동기만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또한 문헌의 물리적 접근 장애는 인용에서의 적합문헌의 간과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3. 4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이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미치는 영향력과의 관련성은 다음의 의미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인용자는 특정지역의 학술공동체의 한 구성원입과 동시에 국제적인 지식체제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연구활동유형이 국내 지향적이든, 국제 지향적이든 이러한 국제적인 지식체제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직간접적인 영향권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이란 지식의 생산, 분배, 유통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의 학문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환경으로 정의¹⁾될 수 있으며, 생산된 지식의 내용(개념, 이론, 연구방법, 연구결과)뿐 아니라, 생산량(출판량), 분배, 유통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자와 제공자로서 영향력을 점하고 있는 중심부 영역과 이러한 생산자와 제공자로서의 기능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요자와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주변부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회 나름의 지식의 생산토대를 갖추

지 못한 주변부 영역의 연구자들은 끊임없는 긴장과 기대 속에서 중심국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내용(개념, 이론,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관심을 기울려야 하며, 이들 주변부 영역의 대부분(혹은 일부분)의 연구자들은 인용활동을 통하여 중심부 영역의 연구자들이 생산한 지식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중심부 영역과의 최소한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에서 중심부 영역의 연구자와 상대적으로 주변부 영역을 점하는 연구자의 인용동기에는 어떤 차이가 잠재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러한 가정은 다음의 관련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그 관련성을 유추할 수 있다.

- ① 주변부 영역 연구자들에게 출판지는 인용행태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때 이들은 국외자료의 인용을 선호한다 (Lancaster, Lee, and Dhirvio 1990; Bekavac, Petrak, and Buneta 1994).
- ② 국가별 인용율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Matthew Effect)이 존재한다 (Bonitz, Bruckner, and Scharnhorst 1997).
- ③ 주변부 영역 국가에서의 국외문헌 인용율은 자국어로 번역된 국외문헌의 번역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Liu 1997).

이상에서 언급된 연구는 국제적인 지식체제

1) 또는 이종각(1983, 69)의 논의에 따르면 "국제지식체계란, 국제적으로 지식의 생산체계, 분배 및 저장체계, 학문적 탁월성 인정체계 등으로 구성된 지식의 생산, 분배, 이용의 사회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모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식체제의 실제적인 한 단면의 예가 서지정보나 인용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들(예: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ence Citation Index 등)인데, 이는 명미권 중심의 축적으로, 주변부 영역의 빈약한 국제적 가시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주변부 영역의 지역적 생산성이나 고유의 연구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간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지고 있다. 또한 주변부 영역의 국제적인 가시성의 획득이나 영향력의 확대 방안이 비단 언어적인 측면의 극복문제나 국제적인 참여율의 향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환경과 관련하여 각기 다른 현상을 측정하고, 분석한 논의이지만, 한가지의 동일한 현상을 시사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에서 주변부 영역 연구자들은 자국에서 생산된 지식보다는 중심부에서 생산된 지식의 인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용동기의 측면에서 몇가지의 요인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주변부 영역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적 틀거리의 구축에 필요한 개념이나 방법론을 전적으로 중심부의 국외문헌에 의존하는 인용동기에서 비롯되었거나, 둘째, 자신들의 연구가 그들이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중심부 영역의 연구경향의 한 지류임의 과시나 혹은 중심부 영역과의 국제적인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계 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²⁾.

이와같이 인용자를 둘러싼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은 인용자가 중심부에 입지한 연구자인가,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입지한 연구자인가에 따라 혹은 인용자가 어느 정도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해내는 생산자인가, 연구적 타당성만을 인정받는 지식의 재생산자인가, 소비자인가에 따라 인용자의 인용동기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인용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선행연구의 기존지식(지식주장)을 승인하거나 혹은 응용하거나, 부정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논리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획득하고, 설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설득이란 후속연구자의 그 이용, 즉 잠재적 인용자에 의한 잠재적 인용이라는 인용의 순환적 의미까지도 전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인용행위란 결국 정태적 과정이기 보다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식을 생산, 재생산하고, 유통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용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빈번하게 수행되고, 분석, 해석되는 이론적 근거는 인용자가 선행연구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자신의 연구논거를 확립하고 설득하기 위해 인용행위가 수행된다는 점이며, 바로 이 점을 인용의 보편적인 근거로 설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인용행위를 수행하는 인용자의 다양한 인용환경적 맥락이 인용자의 연구논거 확립에 요구되는 정보요구인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제와 인용자와 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인지사회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논의하

2) 이러한 추정의 예로 김갑선(1996,145-147)의 한국 여성학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여성학의 제학문적 특성과 여성학이 한국사회로 도입된 대표적인 서구학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Peritz(1983)와 Brook(1985)모형을 적용, 국외문헌 인용동기를 조사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여성학 연구자들은 연구의 최신성 유지, 개념적 정보, 연구방법론을 인용하기 위해 국외문헌을 인용하고 있다.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적 영향요인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일차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일반적인 인용동기요인을 도출하고, 두번째로는 이러한 일반적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 환경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인용동기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인용이론의 양대 관점인 사회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에서 인용동기연구의 특성을 검토하고, 인용동기 관련연구들을 인용동기의 간접적 분석인 인용기능연구와 인용동기연구로 대별하여 구성요소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1) 실질적 동기: 개념적, 방법론적 인용, (2) 설득적 동기: 긍정, 응용, 부정적 인용, (3) 형식적 동기: 형식적, 서지적 인용, (4) 사회적 관계 동기: 친분관계, 지식과시적 인용을 일반적 인용동기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문헌/지식의 생산, 분배, 유통의 순환적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회환경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인용자와 문헌적 요인을 포함하여, 1) 사회문화적 환경, 2) 정보환경, 3)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을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적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세가지 인용환경을 별개적인 인용환경 범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용환경에서 인용자는 특정 사회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국제지식체제의 한 구성원이며, 성별적 특성과, 주제배경(인문,사회,자연,공학), 연구영역, 연구논문의 특성(이론,방법,실험/실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문헌적 요인으로는 국내문헌(국내지식)과 국외

문헌(국외지식)으로 대별하였다.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요인인 사회문화적 환경이란 인용자의 지식체제와 사고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사회 고유의 독자적인 지식의 생산태도의 소유 여부 혹은 외부지식체제 의존 여부, 인용자의 지식생산방법, 연구 아이디어 획득원이 어디인가의 요인이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환경이란 인용자의 지역적 및 국제적 정보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축적,제공기관의 성숙도, 정보기술의 친숙도 정도, 문헌의 물리적 접근성 정도, 적합 문헌의 접근용이성 정도가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지식체제 환경은 국내의 학문 공동체의 지식의 생산, 분배, 유통의 국제적 맥락을 의미하며, 인용자가 중심부 혹은 주변부의 입지 여부, 지식의 생산자, 재생산자, 소비자인가의 여부가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인용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용환경요인과의 관련성을 논의한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인용연구에 있어, 인용자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단위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각 부문의 외부요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유기적인 관계속에 있음을 제기하고, 둘째, 기존의 인용연구가 인용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분석과 그 해석에 집중되어왔던 점에 대하여 문헌과 인용자를 둘러싼 제 인용환경과의 관련성에 관한 이해를 시도하고, 셋째, 인용을 그 사회의 다양한 인용환경과 인용자와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해당 사회의 사회적 산물로

서 인식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환경적 요인으로서 정치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기된 인용환경적

영향요인 뿐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인용자의 다양한 사회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모형이 모색되어지고, 제시된 관련성을 토대로 실증적인 연구의 수행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김갑선.1996. "여성학연구자들의 정보이용행태 및 정보기술의 이용". 한국 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논집 13 : 137-155.

이정모.1996. "인지심리학이 과학이론과 인식론에 주는 의의". 인지심리학 의 제 문제. vol.1. 서울 : 동원사 : 303-334.

이종각. 1983. "외국어론의 도입과 교육이론의 토착화". 교육학연구 21(1) : 67-82.

Allen, Bryce. 1997. "Referring to schools of thought : An example of symbolic citations." *Social Studies of Science* 27 : 937-949.

Amsterdamska, Olga and L. Leydesdorff. 1989. "Citations: Indicators of significance?." *Scientometrics* 15(5-6) : 449-471.

Bekavac, Anamarija, Jelka Petrak, and Zoran Buneta. 1994. "Citation behavior and place of publication in the authors from scientific periphery : A matter of quality?."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0(1) : 33-42.

Bonitz, M., E. Bruckner, and Andrea Scharnhorst. 1997. "Characteristics and impact of the Matthew Effect for countries." *Scientometrics* 40(3) : 407-422.

Brooks, Terrence A. 1985. "Private acts and public objects: An investigation of citer motiv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6(4) : 223-229.

Brooks, Terrence A. 1986. "Evidence of complex citer motiv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7(1) : 34-36.

Chubin, D. E. and S. D. Moitra.1975. "Content analysis of references: Adjunct or alternative to citation counting?." *Social Studies of Science* 5 : 423-441.

Cozzens, Susan E. 1989. "What do citations count? : The rhetoric-first model." *Scientometrics* 15(5-6) : 437-447.

Cronin, Blaise. 1981. "The Need for a theory of citing." *Journal of Documentation* 37(1) : 16-24.

Frost, Carolyn O.1979. "The Use of citations in literary research: A preliminary

- classification of citation functions." *Library Quarterly* 49(4) : 399-414.
- Gilbert, G. N. 1977. "Referencing as persuas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7 : 113-122.
- Kaplan, N. 1965. "The Norms of citation behavior : Prolegomena to the footnote." *American Documentation* 16(3) : 178-184.
- Lancaster, F. W., S. K. Lee, and C. Diluvio. 1990. "Does place of publication influence citation behavior?." *Scientometrics* 19(3-4) : 239-244.
- Leydesdorff, L. 1987. "Towards a theory of citation?." *Scientometrics* 12(5-6) : 305-309.
- Lipetz, Ben-Ami, 1965. "Improvement of the selectivity of citation indexes to science literature through the inclusion of citation relationship indicators." *American Documentation* 16(2) : 81-90.
- Liu, Mengxiong. 1993a. "The Complexities of citation practice: A review of citation studies." *Journal of Documentation* 49(4) : 370-408.
- Liu, Mengxiong. 1993b. "A Study of citing motivation of Chinese scientist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9(1) : 13-23.
- Liu, Ziming. 1997. "Citation theories 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flow of information: New evidence with transl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8(1) : 80-87.
- Martyn, John. 1975.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Documentation* 31(4) : 290-297.
- May, K. O. 1967. "Abuses of citation indexing." *Science* 156 : 890.
- Merton, R. K. 1973. *The Sociology of scienc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ravcsik, Michael J. and Poovanalingam Murugesan . 1975. "Some results of the function and quality of citation." *Social Studies of Science* 5 : 86-92.
- Murugesan, Poovanalingam and Michael J. Moravcsik. 1978. "Variation of the nature of citation measures with journals and scientific specialt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9(3) : 141-147.
- Oppenheim, Charles and Susan P. Renn. 1978. "Highly cited old papers and the reasons why they continue to be cited."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9(5) : 227-231.
- Peritz, B.C. 1983. "A Classification of citation role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related fields." *Scientometrics* 5(5) : 303-312.
- Ravetz, J. R. 1971. *Scientific knowledge and its social problems*. Oxford: Clarendon.
- Sandison, Alexander. 1989. "Thinking about citation analysis." *Journal of Documentation* 45(1) : 59-64.

- Shadish, William R. et. al. 1995. "Author judgements about works they cite : Three studies from psychology journals." *Social Studies of Science* 25 : 477-498.
- Small, H. 1978. "Cited documents as concept symbols." *Social Studies of Science* 8 : 327-340.
- Small, H. 1987. "The Significance of bibliographic references." *Scientometrics* 12(5-6) : 339-342.
- Smith, Linda C. 1981. "Citation analysis." *Library Trends* 30(1) : 83-106.
- Snyder, Herbert, Blaise Cronin and Elizabeth Davenport. 1995. "What's the use of citation? : Citation analysis as a literature topic in selected disciplines of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21(2) : 75-85.
- Soper, Mary Ellen. 1976. "Characteristics and use of personal collections." *Library Quarterly* 46(4) : 397-415.
- Vinkler, P. 1987. "A Quasi-quantitative citation model." *Scientometrics* 12(1-2) : 47-72.
- Weinstock, Melvin. 1971. "Citation indexes." In : *Encyclopa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 New York: Marcel Dekker : 16-40.